

# 맞춤형 교육으로 4차산업 인재 키운다

## 도내 16개 발명교육센터 내 '미래창작공방' 구축... 3D프린터 등 지원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미래창작공방'을 조성해 4차산업 인재를 키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4개 시군 16개 발명교육센터 내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하고 3D프린터, UV프린터, CNC 조각기, 레이저커팅기, 교육용 로봇 등을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과학교육원, 전주진북초, 전주인봉초, 이리중앙초, 남원도룡초, 김제·순창교육지원청, 부안동

초등학교 등 8곳에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했고 2019년에는 군산중앙초, 봉동초, 임실동중, 진안 마이종합학습장, 정읍·무주·장수·고창교육지원청 등 8곳을 추가 조성해 총 16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도 마련된다. 초등 5, 6학년의 경우 실과 교육으로 진행되고, 중·고등학교는 기술·가정 시간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

며 미래창작공방에서 생산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 특허 출원과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창작공방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도 강화한다. 기자재 활용법과 지도법 중심으로 미래창작공방 담당교사 자율연수를 운영하고,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지도법을 중심으로 미래창작공방 활용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도내 초·중·고 교원 및 관련 전문

가 등 10팀으로 구성된 미래창작공방 연구지원단도 운영한다. 학교급별 미래창작공방 활용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 미래창작공방 활용 수업 현장 적용·검토, 미래창작공방 교육 우수사례 발굴, 미래창작공방 활용 결과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초지능화 사회에 대비해 협력·공유 기반의 창의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래공방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과 이형우 국제협력본부장은 최근 호치민 인문사회대를 방문, 이 대학 능고 때이 평 란 총장을 만나 양 대학 간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했다.

##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디딤돌'

### 전북대, 호치민 인문사회대와 교류협력 강화

전북대학교가 호치민 인문사회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과 이형우 국제협력본부장은 최근 호치민 인문사회대를 방문, 이 대학 능고 때이 평 란 총장을 만나 양 대학 간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초 베트남 연구센터를 만들고 교환학생 및 단기 연수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 뜻을 같이 했던 양 대학이 더욱 진전된 교류 성과를 내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대학은 그간 교류에서 나아가 베트남어 교육과 한국기업 연계 인턴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북대는 호치민 인문사회대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연계해 양 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호치민 인문사회대 베트남어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인은 1,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호치민 인사대의 한국기업 연계 언어연수 프로그램은 베트남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글로벌 시대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주목하며 "한국학생들의 베트남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도내 5개 대학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방문, 취업 연구 기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 전북대, 중국 유학생 취업연수 지원 '호응'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방문, 취업 연구 기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2일부터 6일까지 학생들은 현지에서 진출한 국내기업인 우리은행, SPC(파

리바게트), CJ그룹(CJ푸드빌, CGV), STC패션타운, 상해 가로수 분사, 한국 지방정부대표처(전북대표처, 전남대표처, 대구대표처, 경남대표처) 등을 방문해 기업 및 현장업무 소개를 통해 채용과 관련한 집중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지난 취업연수를 통해 실제 SPC, CJ, 대구대표처에 채용된 유학생

3명과 취업성공 사례를 나누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 의류 유통 전문기업인 가로수(GAROSU)와는 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유학생 취업연수는 그동안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2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국내 기업 취업

전략 및 인재상 특강, 입사지원을 통한 이력서 작성방법 특강을 제공하여 방문 기업과의 실질적인 채용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명숙 추진위원장은 "이번 취업연수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되는 취업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 사업의 우수 사례가 전 사업으로 확대되어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과학교육원, 부분일식 공개관찰행사 '인기'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에서는 해가 일부분 가려지는 부분일식의 감동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6일 09시30분에서 11시까지 공개관찰행사를 운영했다.

일반관람객들은 야외부스에서 태양 관찰안경으로 일식을 관찰하고 순서대로 망원경 관찰 및 태양투영관에 비친 일식을 봤다. 예약가족들은 전시 체험관 4층에서 천체망원경으로 일식을 관찰하고 일식체험기 공작 체험을 했다. 이날 일식관찰행사는 과학교

육원 추산 약 250명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일식이 12월 26일에도 일어난다. 올해처럼 일년에 두 번 일식이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은 55년 후인 2074년 1월 27일과 7월 24일에 발생한다.

내년에는 태양이 약 50%정도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6월 21일에 일어나며, 그 때도 전북과학교육원은 부분일식 공개관찰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에서 6일 부분일식 공개관찰행사를 운영했다.

## 전북대 물리학과 학생들, 전자현미경 대회 수상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동아리 SEM Smith(참가 학생 김보현, 김민규, 신종유, 이경연·지도교수 부상돈)가 제4회 대학생이 만든 전자현미경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5개월 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이 학생 손으로 제작된 전자현미경의 설계, 기술성, 완성도를 평가해 수상작이 결정됐다.

전북대 학생들은 기획 및 설계부터 제작까지 직접 겪은 일들과 문제 해결, 이미지 제작 과정 등을 PPT 발표를 통해 담아내었으며 전자현미경 제

작에 대한 열의와 의미 있는 결과를 인정받았다.

김보현 학생은 "교수님과 함께 직접 전자현미경의 이론을 배우고 실제 제작까지 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우리의 활동들이 대회에서 실제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비개발본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센터, 나노융합기술원 한미나노기술 공동연구센터가 주관했으며, 산학협동재단과 코셈에서 후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